

쇼핑 플랫폼에 금융을 더하다… ‘쓱KB은행’ 연내 출범

KB국민은행-SSG닷컴 협업
SSG닷컴에 첫 ‘뱅크 인 플랫폼’
파킹통장·팩토링 등 상품 다양
개인·사업자 맞춤 서비스 제공

국내 첫 ‘뱅크 인 플랫폼(Bank in Platform)’ 모델인 ‘쓱KB은행’이 연내에 나온다. SSG닷컴 이용자들이 금융 상품 가입 등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신사옥에서 최근 열린 협약식에는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 형태다.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 모두가 SSG닷컴 내에서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사옥에서 열린 SSG닷컴-KB국민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왼쪽)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

직접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올해 안에 쓱KB은행의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 이용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알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파킹통장과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킹통장 이용 고객은 SSG닷컴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SSG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SSG머니는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원하는 상품의 구입 자금 마련을 돕는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쇼핑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환전 우대 및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자금제본 구매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브 모바일’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 중

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에 입점한 사업자를 위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패키지는 ▲정산 대금을 입금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 ▲판매 대금 선정산을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 ▲비대면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 ▲KB국민은행 금융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대표는 “쓱KB은행이란 프로젝트명 아래 양사가 함께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쇼핑을 넘어 금융 혜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은 SSG닷컴에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실질적인 금융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SSG 플랫폼 내에서 고객과 사업자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을 국내 첫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월 최대 30만점 적립 비즈 프라임 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9일 ‘KB 비즈 프라임 카드’를 내놨다.

이번 상품은 포인트 적립에 초점을 맞췄다. 전월 이용실적 300만원을 충족하면 사용금액의 0.5%를 월 최대 30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어 백화점과 면세점, 주유 등의 업종에서도 월 최대 30만점 적립 혜택을 적용한다.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용품 업종 이용 시 월 최대 60만점을 적립한다. 전월 실적은 300만원이며 4대보험 영역에서는 사용금액의 10%를 3만점까지 쌓을 수 있다.

연회비는 12만원이다.



신한카드 주유할인·보조금혜택 55화물복지카드 선택

신한카드는 9일 화물차 운전자 혜택을 담은 ‘55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정유사별 화물우대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ℓ)당 55원을 즉시 할인한다. 전월 이용실적이나 할인 한도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 현장 즉시 할인을 통해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쏠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연회비도 없다.

삼성카드 삼성라이온즈카드 홈경기 입장권 할인

삼성카드는 삼성라이온즈와의 협업을 통해 ‘삼성라이온즈카드’를 선보였다. 이번 상품은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입장권과 굿즈샵에서 50% 할인을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홈구장 내 상설 식음매장 10% 할인도 최대 2만원까지 적용한다.

교통, 숙박 할인 혜택도 탑재했다. 철도 요금 및 숙박 플랫폼 놀(NOL), 여기어때 이용 금액의 5%를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디지털콘텐츠(50%), 커피전문점·편의점(10%) 등 영역에서도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모두 2만원이다.

/김정산 기자

새 정부 ‘청년금융’ 재정비… 기존상품 가입 서둘러야

도약계좌·드림청약 중단 가능성
정부 예산 편성 올해까지만 잡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청년정책금융상품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예고한 만큼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상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25%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의 출시가 예정된 만큼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

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정책금융상품들은 현재 올해까지만 운영 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출시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정책금융상품은 윤석열정부에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내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출시 당시에는 상품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받았지만, 거둬들인 상품 개선과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부상했다. 은행권 상품과 비교한 실질 금리는 연 9.54%에 육박한다.

출시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을 금지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연계 가입을 허용했고, 연계 가입 시 일반 가입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이 5년에 달하는 만큼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과의 연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두 상품이 적금과 공제로 상품 유형이 달라 중복 가입은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부터 중순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 가구원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기한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일시납 한도와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의 2배에 해당하고, 금리도 통상 연 2% 수준인 은행권 청약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전용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상품을 취급하

는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따로 없으나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서약서 등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품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액 및 횟수는 계속 인정된다.

청년미래적금의 출시 시기와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판매 지속 여부는 정부의 부처 개편 이후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금융 부처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정책금융상품 운영 기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정책금융상품의 운영 예산은 금융위 등 주무 부처에서 (국회와 기재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라면서 “예산 편성이 부처 권한인 만큼, 내년도 상품의 판매(신규 가입) 여부는 취급 기관에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비씨카드, ‘마르크 샤갈 특별전’ 관람권 10% 할인 행사

미공개 원화 7점 전세계 최초 공개
현장·주요 예매처 할인 자동적용

비씨카드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마르크 샤갈 특별전: 비욤드 타임’ 관람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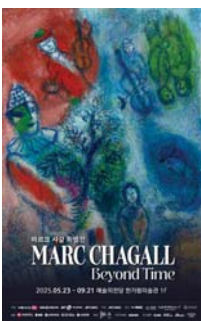
특별전은 마르크 샤갈의 대표작과

미공개 원화 7점을 전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총 8개 섹션으로 구성했다. 회화와 드로잉·석판화 등 17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티켓 금액의 10%를 즉시 할인한다. 현장 매표소는 물론 티켓링크 등 주요 예매처에서도 자동 적용한다.

할인 혜택은 비씨카드 회원사(우리카드·하나카드·NH농협카드·IBK기업은행·KB국민카드·iM뱅크·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신한카드·Sh수협은행·광주은행·비씨바로카드) 소지 고객이 받을 수 있다.

전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 진행된다. 오



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입장 마감은 오후 6시다.

정철 비씨카드 상무는 “비씨카드는 국내외 주요 전시와의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